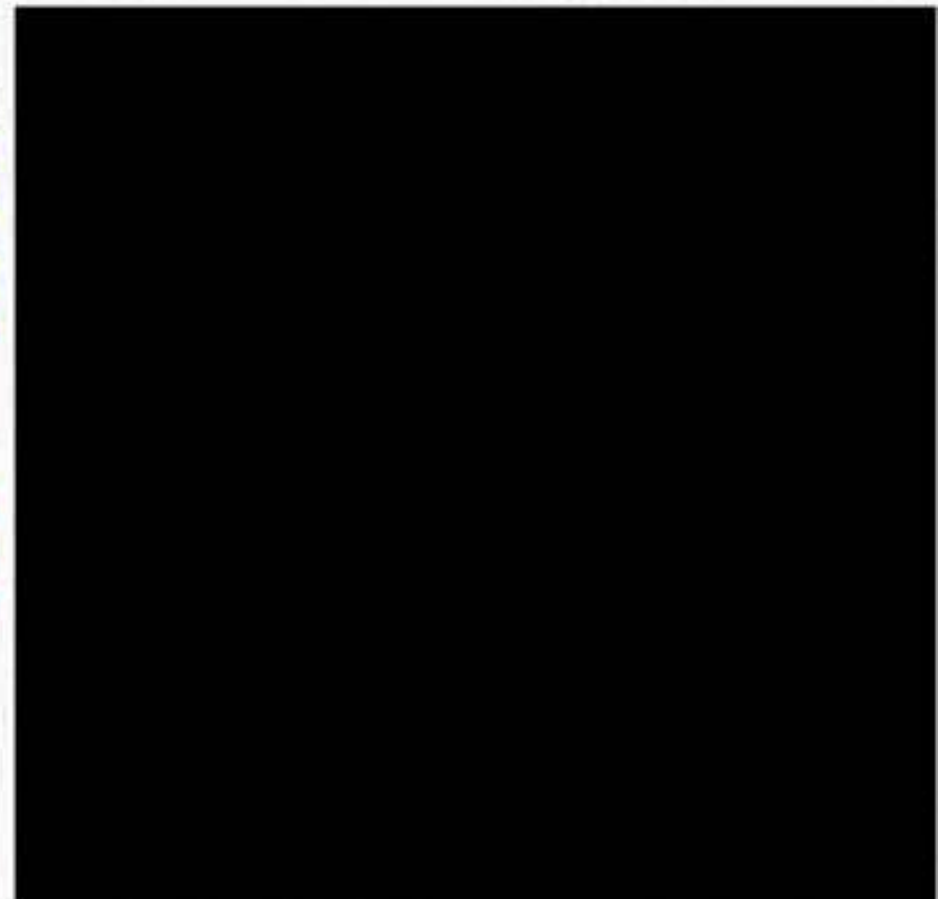


전병헌 대표님 NEWS  
이낙연 상임고문님 NEWS  
충남도당 창당  
울산광역시당 창당  
논평/브리핑  
2025년 선거 소식  
모두발언  
새민주 NEWS  
당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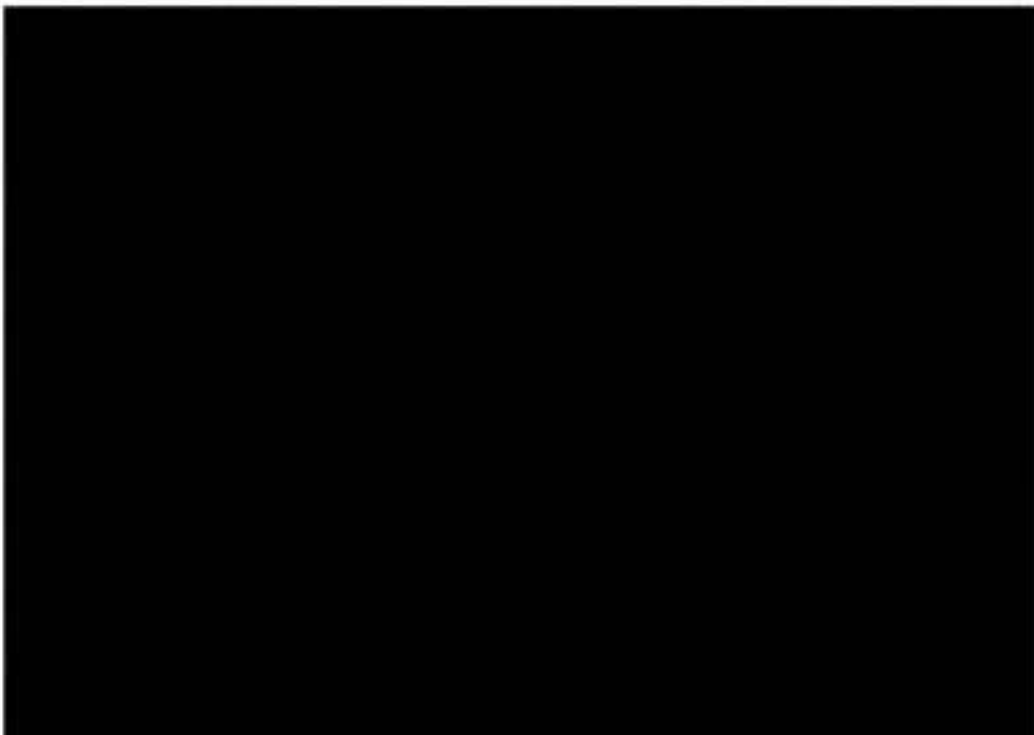


## 창당 1주년 기자회견



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병헌, 창당1주년 회견 "개혁국민연합체... 이재명·윤석열 빼고" ->기사보러가기

## 이재명 대표 신속 재판 촉구 기자회견



## 여의도 초대석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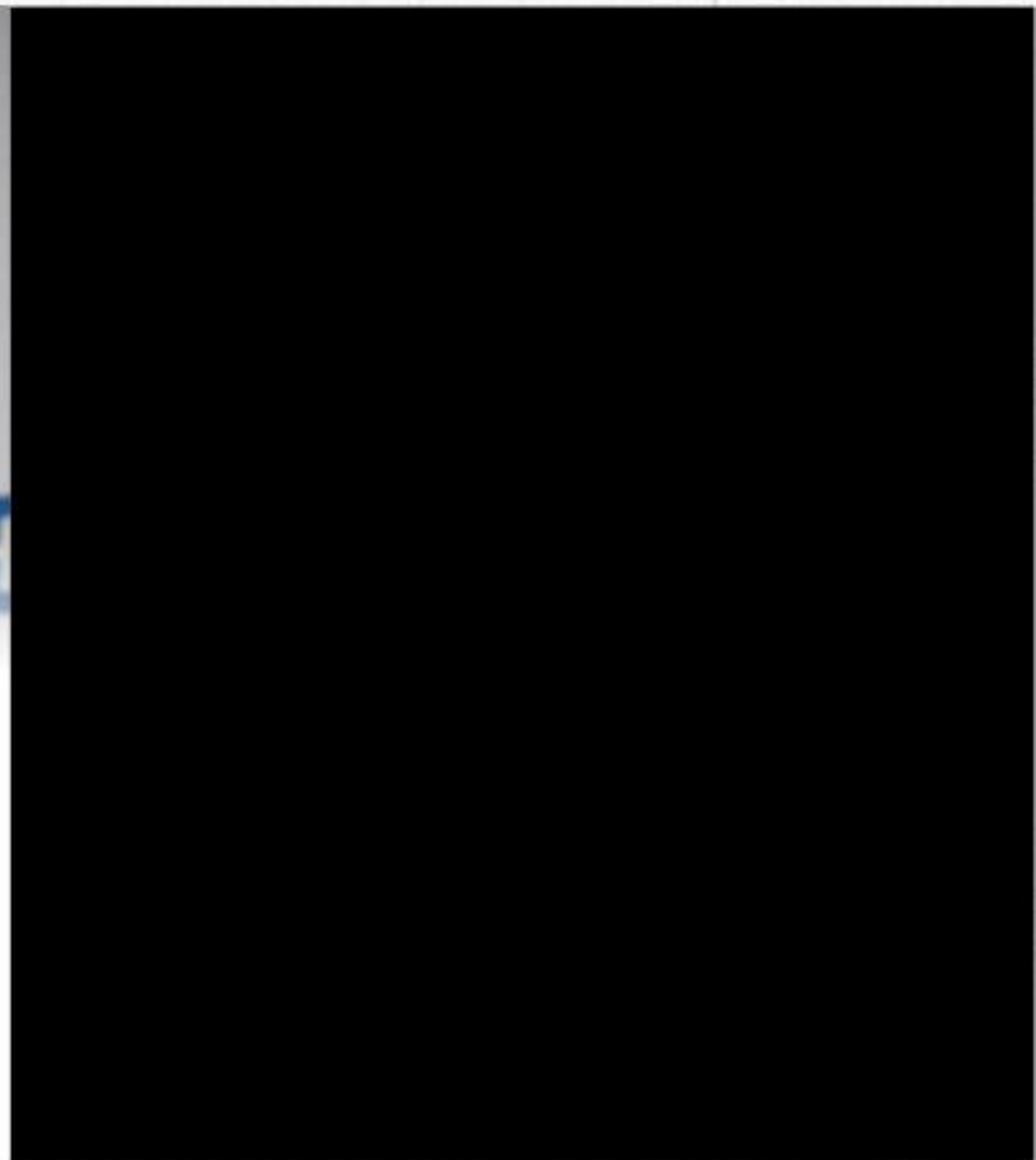


새민주 전병헌 대표가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 비하인드 스토리와 계엄 이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사내용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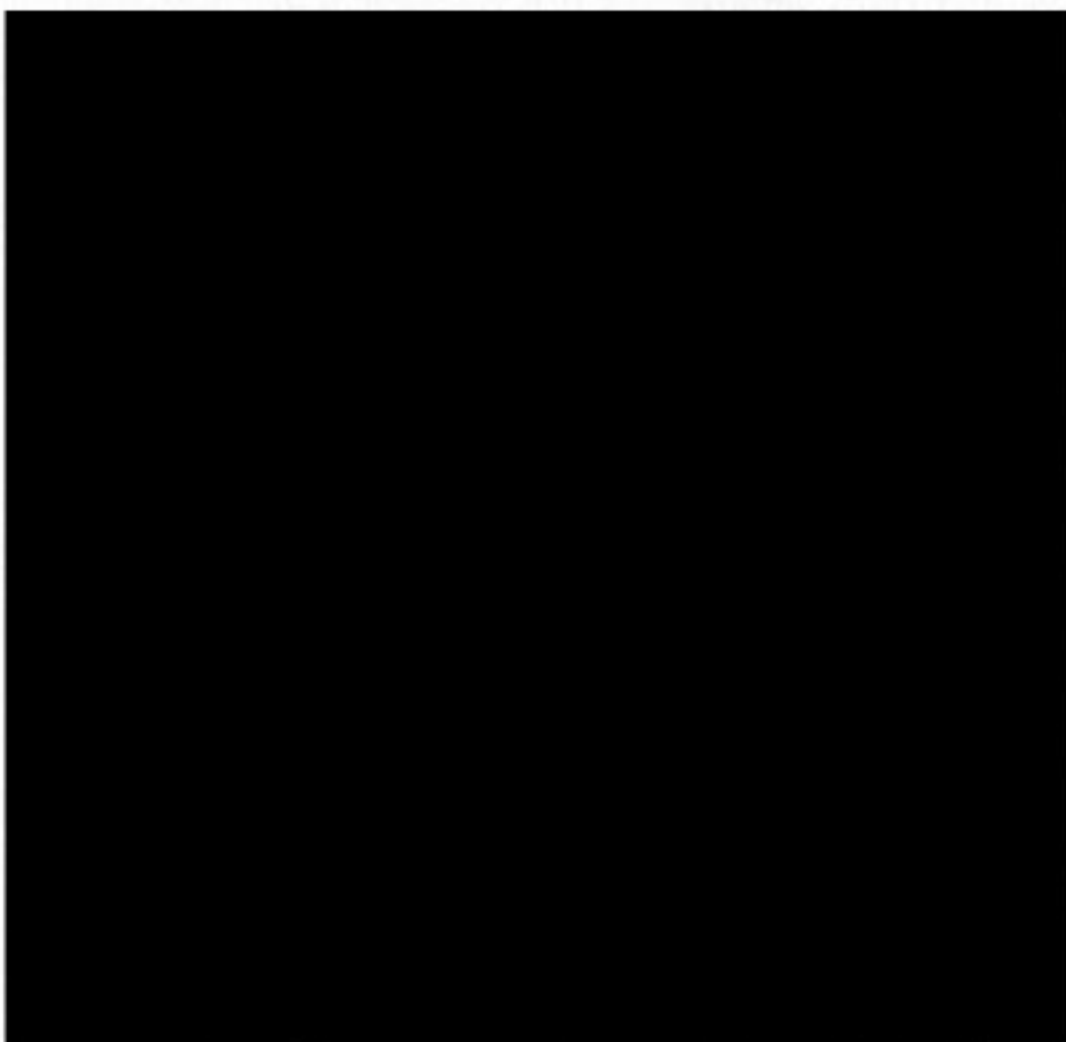




## 제 7 공화국 시국 토론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광주에서 최악의 정치 위기와 개헌을 말한다

2월10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다목적 강당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 토론회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허물어져 있는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채널 A]

▶ 기사내용 :보러가기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본격 충청권 세력 다지기에 나섰다.

▶기사 보러가기



전라남도당 대구광역시당 경상남도당 창당 예정입니다





11일 새미래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울산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울산시당 창당대회는  
이낙연 전 총리 및 전병헌 당 대표와 중앙당, 시도당 지도부와 당원들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전라남도당 대구광역시당 경상남도당 창당 예정입니다



## [김연욱 선임대변인 시리즈 논평] 이제는 개헌(改憲)이다

### 2. 권력구조 개편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속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삼았고,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 선출이라는 혁신적 진전을 이뤄냈다.

당시 군사독재의 폐해를 청산하는 데 직선제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이후 서른일곱 해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릴 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폐단이 잇따랐다는 사실이다.

국회와 사법부가 명목상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예산, 인사,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가 안고 있는 한계와 맞물리면서, 한국 정치가 정권 교체 주기마다 커다란 격변을 겪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제 대신 의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정부 형태를 도입해 권력을 분산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더 보러가기

##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 비상계엄 효과 증발시킨 이재명, '총동원령'으로 발버둥치지만 정치적 사망선고는 머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탄핵찬성 집회에 '개딸 총동원령'을 발동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라면서 정작 본인은 참석하지 않은 것도 코미디인데, 탈퇴했던 '재명이네 마을'에 재등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등 이래저래 모양 빠지는 꼴만 보였다.

사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 '동원형 정당'임을 자백하고 이재명식 정치가 이미 '출석체크 정치'로 전략했음을 공언한 셈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폭포수처럼' 인파가 몰려드는데, 민주당 집회는 '말라붙은 저수지'처럼 쪼그라들고 있으니, 이재명대표 입장에서 이래저래 마음이 급한건 분명하다.

계엄령 비판으로 정국을 휘어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 효과는 증발한 지 오래고, 한때 여의도 도로를 가득 채우고 야광봉을 흔들었던 병력은 대부분 빠져나갔고 탄약도 바닥난 상황이다.

현실은 더욱 냉혹하다. 윤석열의 계엄 헛발질 이후, 한 때 이재명에게 다가간 듯 했던 조류의 흐름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다.

170석을 가진 거대정당이 의원들 출석 체크나 개딸 강제동원 없이는 대중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건, 이미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력에 심각한 이상 신호가 온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도산' 직전이라는 신호이다.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진보진영에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낸 책임은 오로지 '이재명'에게 있다. 170석의 강력한 입법 권력을 쥐고도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당과 당원을 인질로 삼고 국민을 외면한 결과다.

▶ 더 보러가기

## [이영주 대변인 논평]

### 극단적인 양당적대정치, 이대로면 사회갈등을 넘어 폭력적인 내전으로 이어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민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사에 응한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여러 사회갈등 중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뒤를 이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6대 갈등'이다. 이 갈등의 해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갈등 중에 '진보와 보수 간 정치 갈등'의 완화 또는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지역갈등을

해결하려면 결국 정치 갈등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와 사,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 빈자, 중소기업의 보호와 권익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보수는 기업, 부자,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부자나 빈자나, 자본이나 노동이나, 성장이나 분배나,

대기업 중심 경제나 중소기업 다원 경제나 식의 대립구도로 이어졌다.

▶ 더 보러가기



존경하는 새미래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민주 중앙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명기 입니다

이번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당원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지역의 강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과 요구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상도2,4동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갈등속에 놓여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달는 사회적 갈등 속에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겁고 어려운 역할을 묵묵히 맡아주고 계신 전병헌대표님과 이낙연총리님을 위해 저 김명기 또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무한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 보궐선거 후보 김명기 올림





안녕하십니까, 새미래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조덕호입니다.



아산은 역사가 숨 쉬고, 희망이 꽃피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 아산시 영인면에서 나고 자라며,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더 나은 아산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아산시민 앞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4월 2일 진행되는 아산시장 재선거는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아산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후보가  
아산시민의 선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전임 시장들을 살펴봐도 명확합니다.

아산시는 성장하는 도시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아산시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있고 실력을 갖춘 후보여야만  
아산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아산의 발전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저 조덕호가 아산의 선봉장이 되어 아산의 발전을 이끌어내고자합니다.

이번 재선거는 아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확고한 실행력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치고자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함께 이루어가는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시민 여러분과 새미래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미래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새미래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아산시갑 지역위원장  
새미래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지방자치위원장  
조덕호 올림



## ■ 전병헌 대표 ■

[헌재가 엄격하게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판결이 제2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



## ▶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

우선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석연치 않다.

재판 준비 기일 결정 과정을 보면, 피청구인 측의 요청이나 견해가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묵살된다는 인상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탄핵 판결이 당연하다고 믿는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탄핵 반대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봐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 재판과 내란 관련 형사 재판이 겹쳐 주 4회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도 단순히 묵살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주 3회 재판 일정에 대해 항의하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주 2회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하듯, 특하면 조퇴를 허용하며 재판을 마냥 지연시키고 있다.

▶ 더 보러가기

## ■ 이미영 최고위원 ■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단체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유족의 조사 요청마저 무시하다가 일이 커지자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한 세력의 선동이라며

입장을 발표한 MBC의 행태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MBC는 이재명의 대변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보도를 남발해 오고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 더 보러가기



## ■ 이근규 최고위원 ■

과거 처음으로 수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그것을 2020년도 2월 3일을 한국 수요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정한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당에 이낙연 대표께서 해묵은 과제였던 장애인계의 모든 소망이었던 수화 언어법이 발효된 이후에

법정 기념일까지 만들어주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수화의 날 기념식에 이낙연 총리께서 특별히 축하 영상을 보내서

농아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보러가기



## ■ 서효영 최고위원 ■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막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대로 세계 각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관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비상 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미국에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행정명령'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는 정리는 뒷전이고, 언제까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따지며 서로의 권력 욕심만 부릴 것입니까.

▶ 더 보러가기





## 김명기 선거사무소 개소식

- 일시: 2월 25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주소: 동작구 장승배기로 44, 2층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존경하는 동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상도 2,4동)  
보궐선거 후보자 김명기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꼭 방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

보궐선거 후보자 김명기

## [이재명 대표 신속 재판 촉구 기자회견]

전병헌 대표님 말씀 중 방청객들

## [플로깅]

상주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 시국 토론회가 있는 날 오전,  
여성위원회 주최로 새미래민주당 당원분들의 플로깅이 있었습니다



[출처: 유튜브 정치신세계]



새미래민주당

당원 가입




[함께 만드는 당원의 이야기, 함께 만드는 새민주ON]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새민주ON 이 당원 여러분과 독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 일상 속 작은 깨달음 / 요리 / 반려동물  
여행 / 맛집 / 나옴 이웃이야기 / 정치 / 사회 / 역사까지

형식에 상관없이 글 그림 사진 모두 좋습니다

 참여방법

| 주제 : 자유 | 보내주실곳 : SAEMINJOOON@GMAIL.COM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로 새민주ON 을 풍성하고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 새미래민주당 편집위원회